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선구자 김성욱

Level Designer, VR Developer

김성욱 (Kim Seong Wook)
1996. 03. 01

EDUCATION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학과
프로그래밍 전공

CONTACT

010 6543 5335
wookive@gmail.com
paulive@naver.com

AWARD

1학년 1학기
콘텐츠 디자인 우수작,

1학년 2학기
3D 디자인 우수작,

2학년 1학기
프로젝트 스튜디오 우수작,

C-DAK 공모전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우수상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

어릴 적부터 제 상상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하여 흥미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 처음 시작한 것이 플래시로 간단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행복했고, 그것이 나만의 창작물이 된다는 것에 큰 성취를 느꼈습니다. 그 행복과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에 겁내지 않고 배움을 즐기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 'Region'이라는 플래시 동아리를 창설하고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하여 플래시게임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방송부 장으로서 기획, 촬영, 편집에 관해 공부를 하여, 지역 청소년 UCC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VR 기술에 흥미를 느껴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 A-frame을 활용한 WebVR을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해가는 기술에 맞춰 제자리에 고여 있지 않고 평생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저는 학교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창의적인 접근으로 늘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배움으로 얻은 지식의 기본들을 잘 가꾸어 새로운 도전에도 겁먹지 않고 대담하게 진행하는 성격과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 막히는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하나의 틀에 맞춰 찍어내는 일에는 미숙합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 곳이라면 앞장서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제가 배우고 도전하며 얻은 독보적인 결과물이 누군가에겐 배움으로, 누군가에겐 새로운 도전으로, 또 누군가에겐 꿈을 심어주는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창작의 활동에서 누군가와 수평적으로 일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협동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에 익숙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위해 태어난 회사에서 위험은 혁신을 포기할 때 생긴다. 진짜 위험은 안전하게 사고하고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다” 애플의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의 말은 제가 행해온 모든 창의적 행동들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혁신을 위한 삶이고, 안전하게 사고하고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을 기피하며 늘 성장해왔습니다.

목적은 뚜렷하게, 결과는 참신하게 이 마음가짐으로 제가 맡을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